

당진의 이용후생
-백촌강전투 백제부흥군의
해양문화 배경
기억유산과 관련하여

2022. 7. 21

Daejin University 최 원혁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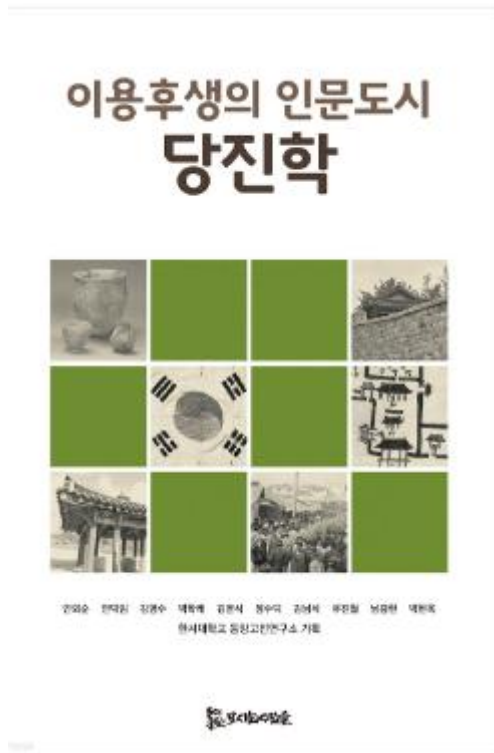
II.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연구의 필요성

III.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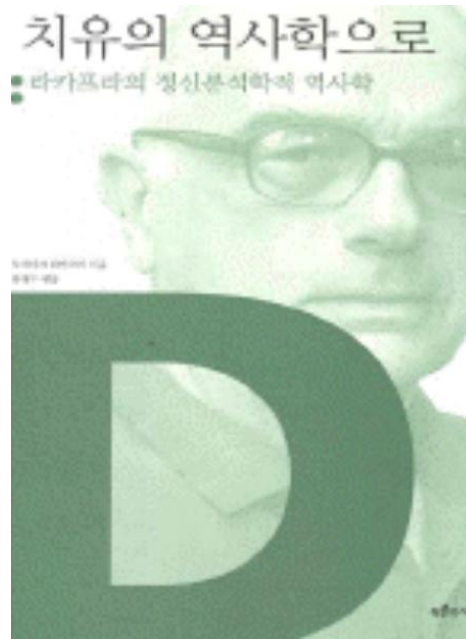
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V. 나가는말

1. 들어가는말



두 얼굴의 당진
김대건 신부와 같은 극단적
정신문화와 이용후생문화 혼재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상실
부분대상에만 집착하고
대타자를 발견 안함

치유의 이용후생학으로
제해석할것을 제안
당진시의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는 미비



원형을 통한 치유 시도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연구의 필요성

III.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V. 나가는말

II.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연구의 필요성

(사)내포지방고대문화연구원,
당진역사연구소,
대한상고역사순례단이 주최하는
제1회 백강해전 무주고혼 진혼
예술제를 석문면
용무치마을에서 2020.10.10 개최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http://www.idjnew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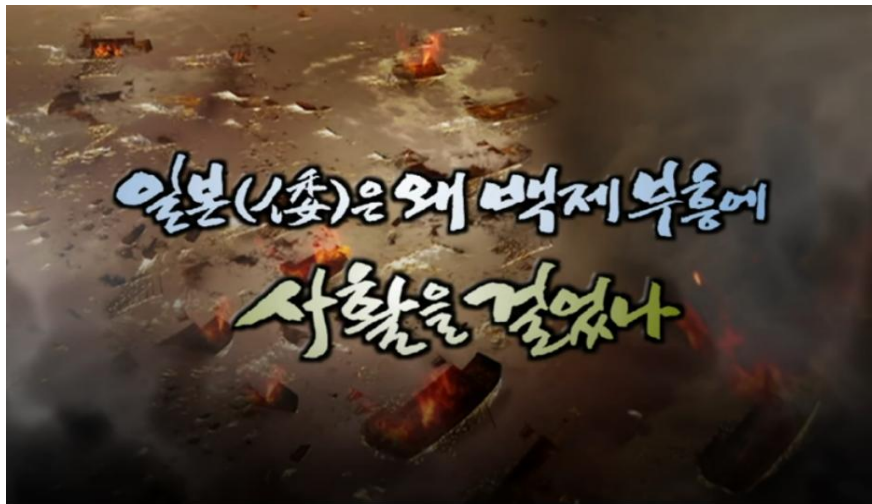


전투가 벌어진 백강을 두고 전북 부안과
당진 석문면을 두고 학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다.

역사적 기록으로 석문면 일대가 유력”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http://www.idjnews.kr)

출처
: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5707>



<https://youtu.be/SnftcR42mWQ>

KBS HD역사스페셜 - 일본은 왜 백제부흥전쟁에 사활을
걸었나 / KBS 20051014 방송



<https://youtu.be/SnftcR42mWQ>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 - 백강전투를
아십니까? / 2016.10.10 방송

II.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연구의 필요성

연구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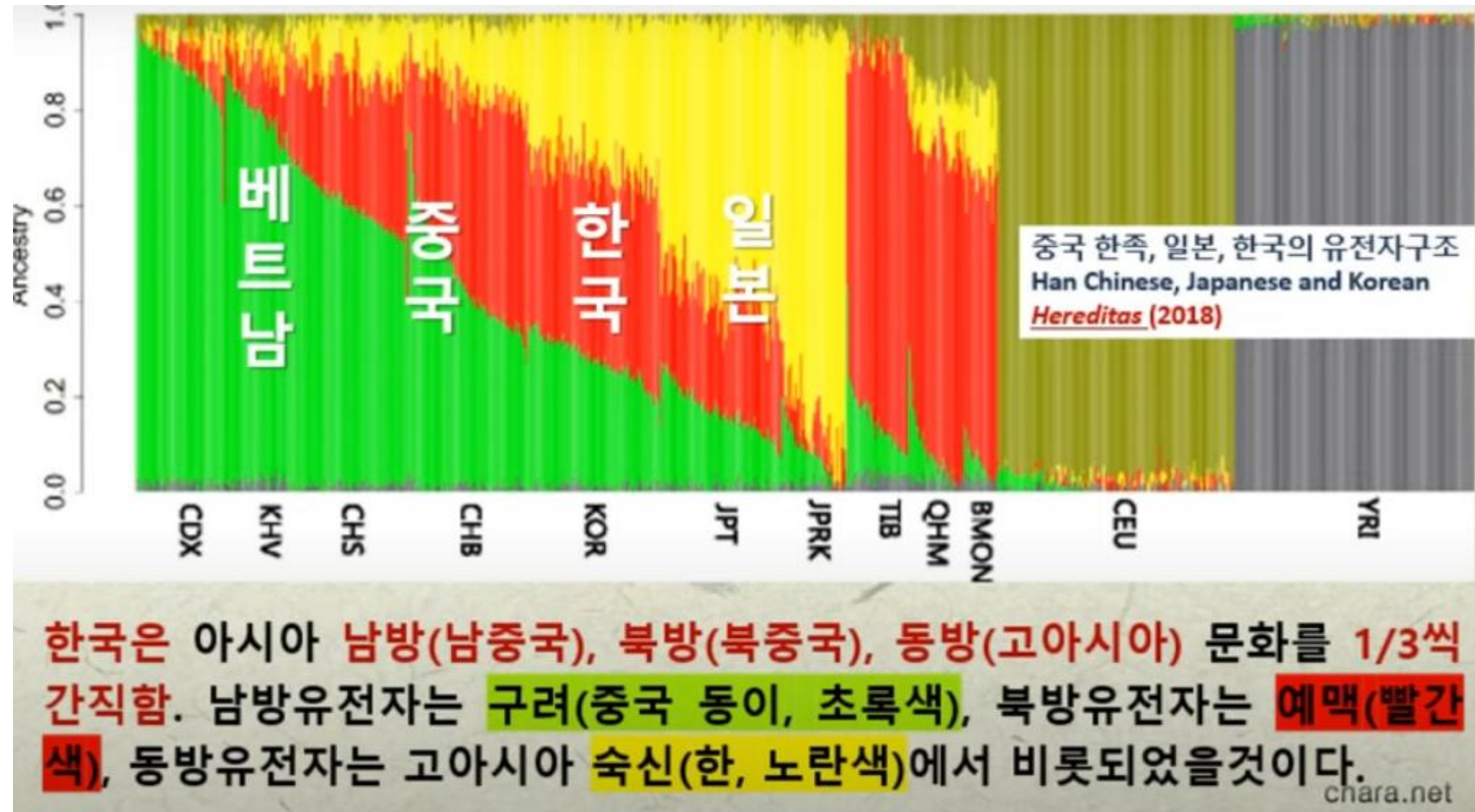
한국인과 북방 한족(북부 중국인, 고대 중원인)은
고대에 잦은 교류가 있었으며(같은 민족), 1,200년
전(통일신라, 당나라 시기)에 갈라지기 시작한다.

Korean and northern Han Chinese had frequent communications in ancient time, and the divergence time between the two populations was estimated as ~ 1.2 KYA (corresponding to the later period of Three Kingdoms of Korea, or the Tang Dynasty in China).
Genetic structure, divergence and admixture of Ha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populations :
Hereditas volume 155, Article number: 19 (2018)

cnar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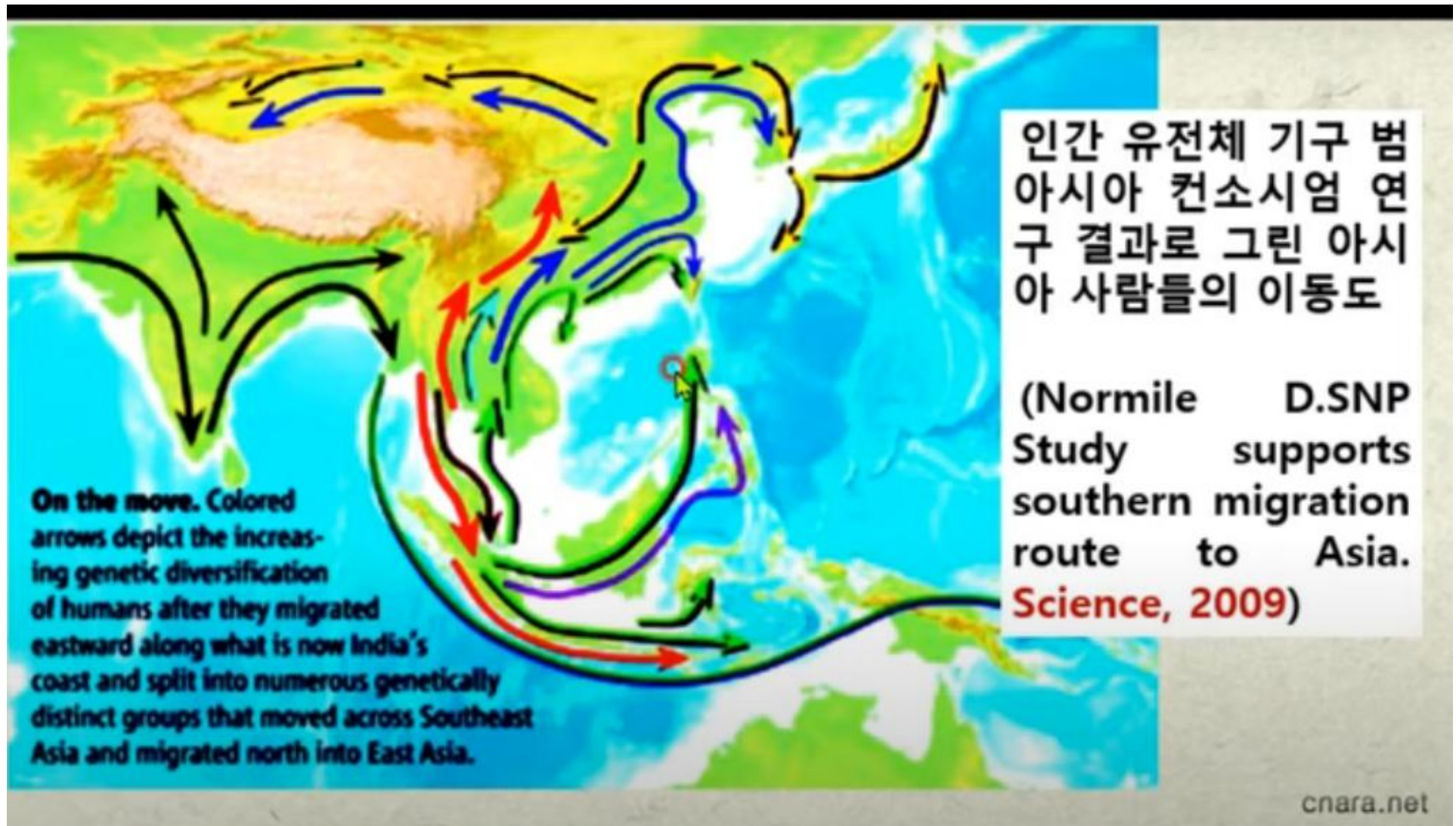
출처 : <https://m.blog.naver.com/aaaa123krkr/220174812133>

II.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연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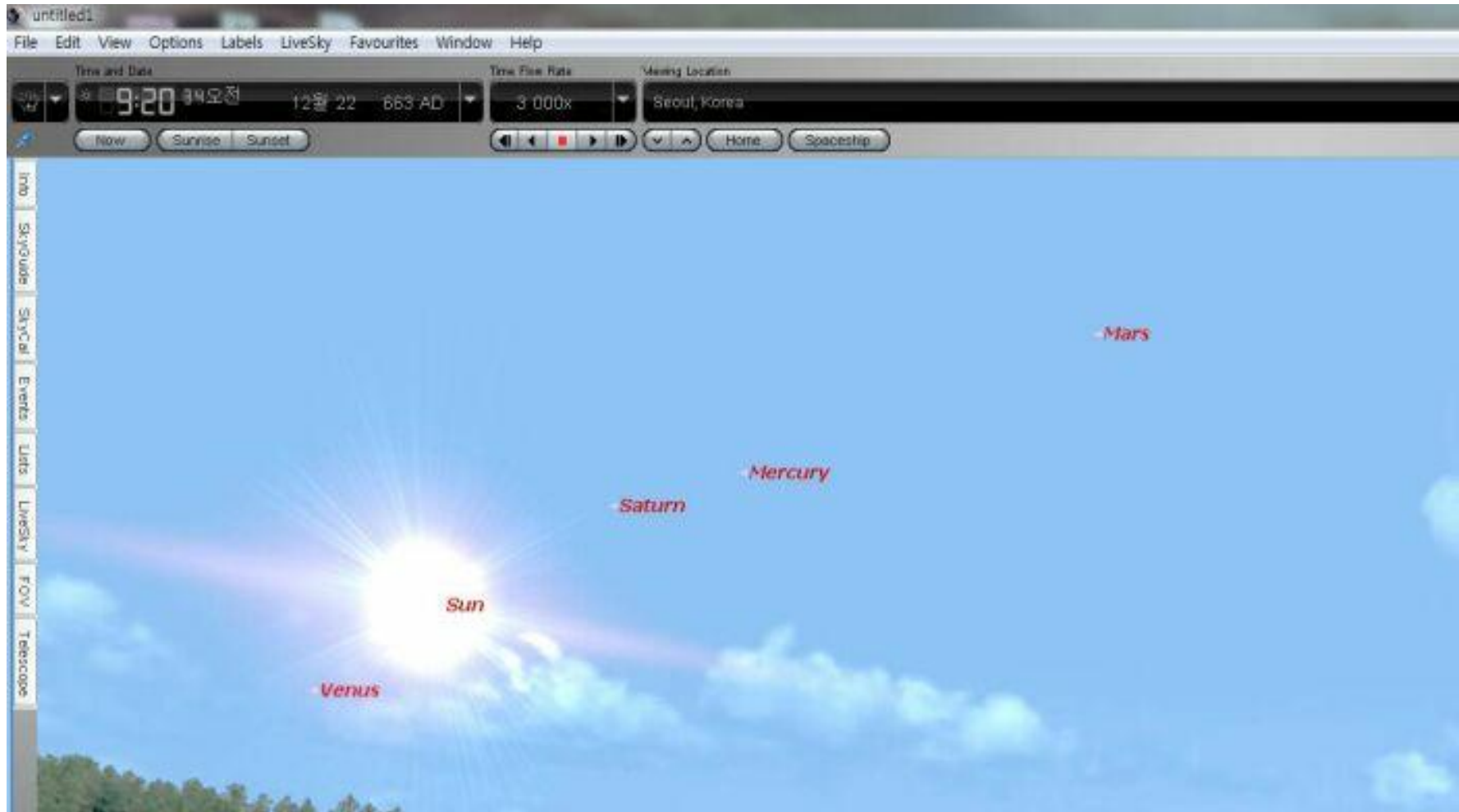
출처 : <https://m.blog.naver.com/aaaa123krkr/220174812133>

II.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연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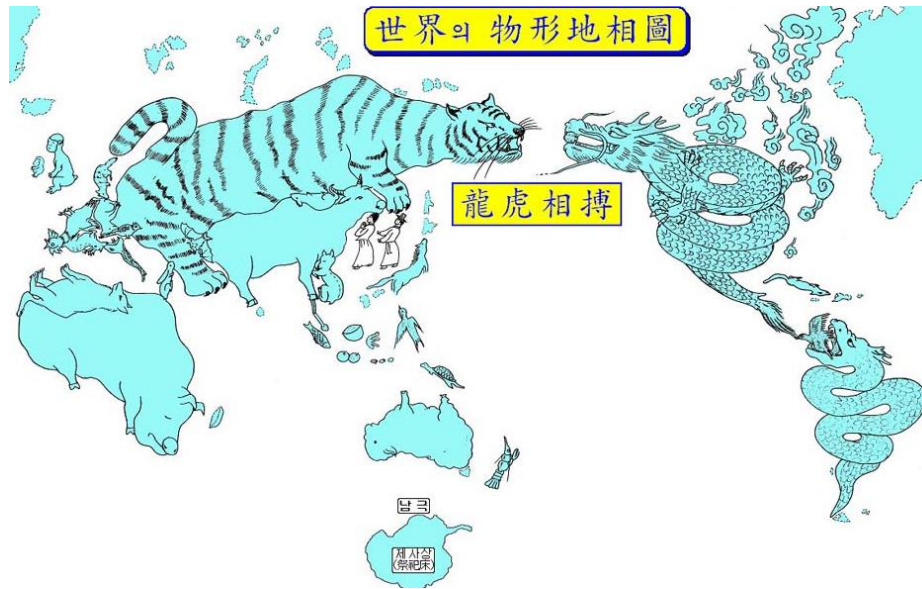


출처 : <https://m.blog.naver.com/aaaa123krkr/220174812133>

II.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연구의 필요성



II.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연구의 필요성



원효대사 '원효결'서 첫언급 "나라 땅의
내장부 '내포'" 기록

출처 : 대전일보

출처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900>

내포와 한반도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연구의 필요성

III.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V. 나가는말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상나라가 멸망할 당시(BC 11세기) 기존에 없던 상나라계 청동기가 분포한 요서 지역. 이는 상나라의 멸망과 더불어 상나라의 주요 세력이 중원에서 이 지역으로 이주했음을 뜻한다

중국 국무원에서 2009년 출간한 권위 있는 역사서 《중국역사상식》에 그려진 동이와 화하의 영토.

출처 : 2015년 월간조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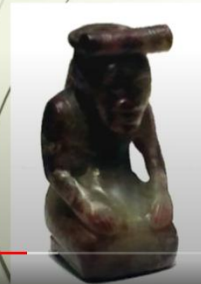
<http://m.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510100028>

- ⊙ 동이족이 동아시아 문자(한자), 음악, 종교, 예절, 청동기 문화 창조
- ⊙ 주나라에 망한 상나라(은나라) 유민들, 선조들의 땅인 조선으로 대이동
- ⊙ 한반도 토착 동이 세력인 왜, 한반도 대혼란 피해 일본으로 이주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 상나라와 부여의 시조가 모두 새의 알에서 태어남
- 두 무릎을 꿇어 겸손을 표현함. 이는 화화족과 다른 동이족의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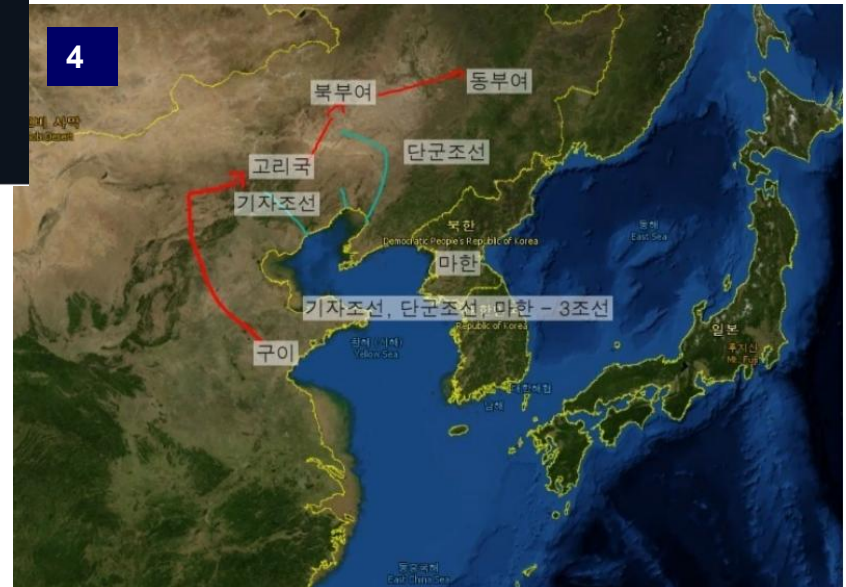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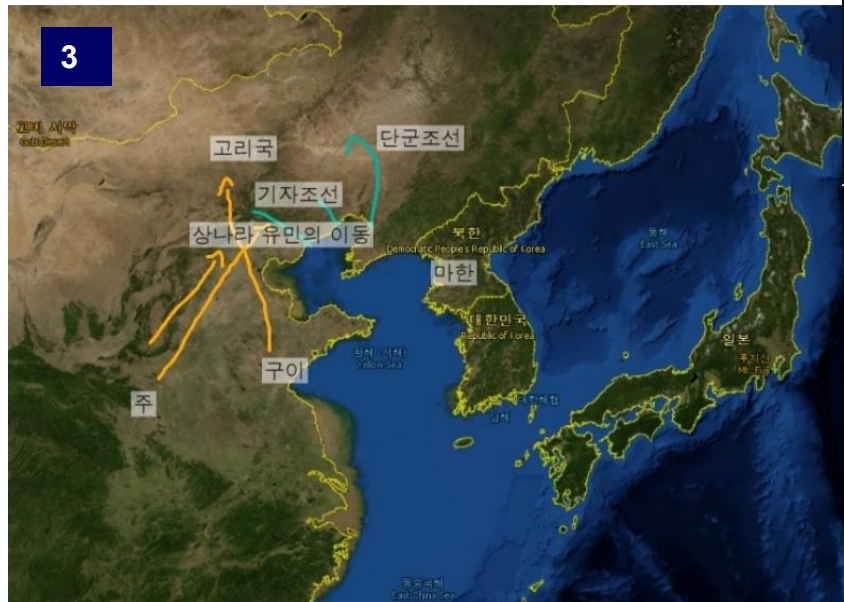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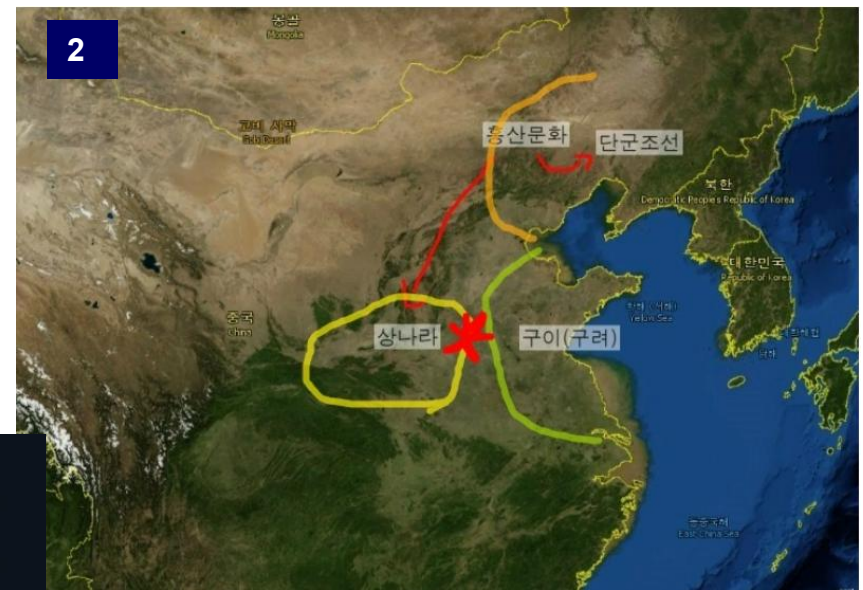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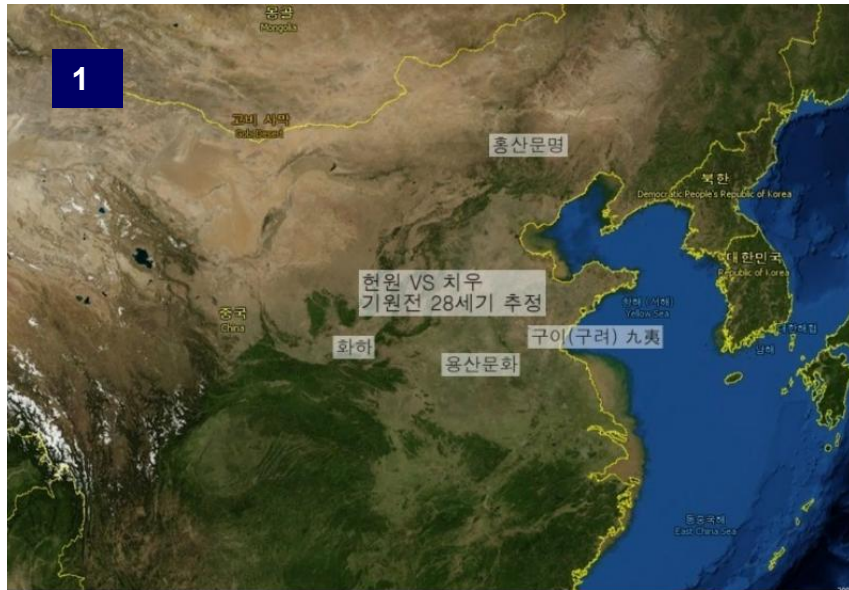
무릎 꿇고 앉은 상나라 신하(BC12세기)(중국 인위박물관).

cnara.net

이는 부여의 국호가 공식적으로는 '예'였음을 말합니다.
예(濊)는 중국어로 '휘(Hui)'이며 이 '휘'는 왜(일본)의
원 국호인 '위(委, 倭)'와 상통합니다.

즉, 상나라(위), 부여(휘), 일본(위) 사람들이 자신의 나
라를 부르던 호칭이 같았다는 말입니다.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동이
한국사
시대
동

그림 출처 :
<https://m.blog.naver.com/aaaa123krkr/220174812133>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李德山과 같은 이
는 기자조선으로 인해 조선이란 개념이 처음 만들어졌다고 보았다(【李德山, 2002】)
李德山の 경우 1996년에 출간된
東北古民族與東夷淵源關係考論 (長春：
東北師大)이란 책에서는箕子朝鮮 이전에 이미 朝鮮이란 실체가 있었고,
그 古朝鮮族의 시조가檀君임을 주장했다.

고고학적인 근거, 풍속학적인 근거를 통해 東夷이주설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연구자는 李德山이다. 그는 東夷를 華夏族에 대
해 동방에 거주하던 민족의 專稱으로 보아, 東夷가 그들이 말하는 漢
族과는 별개의 집단임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러나 그는 요동 東夷를
山東의 東夷가 이주한 것으로 보고, 양자를 동일 문화의 다른 단계로
본다

중국학계의 고만족 인식과 동북 연구의 새로운 경향 ◇ 홍승현 39

李德山, 高句麗族稱及其族屬考辨(社會科學戰線 1992-1, 1992); 試
論研究
東北古民族起源的方法(東北師大學報 1994-5, 哲社版, 1994);
東北古民族源於東夷論(東北師大學報 1995-4, 哲社版, 1995);
東北古民族與東夷淵源關係考論 (長春: 東北師大, 1996); 貊族的
族源及其發展演變(社會科學戰線 1998-1, 1998); 關於古朝鮮
幾個問題的研究(中國邊疆史地研究 12-2, 2002).

III.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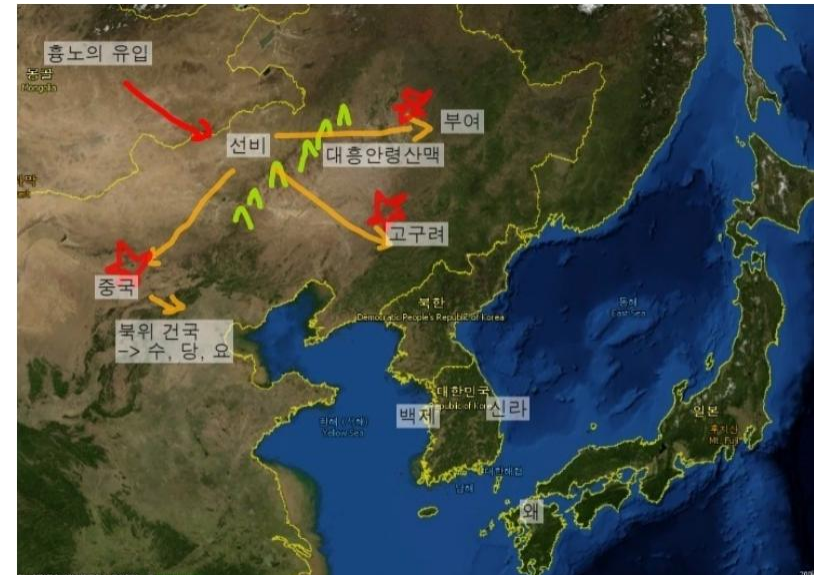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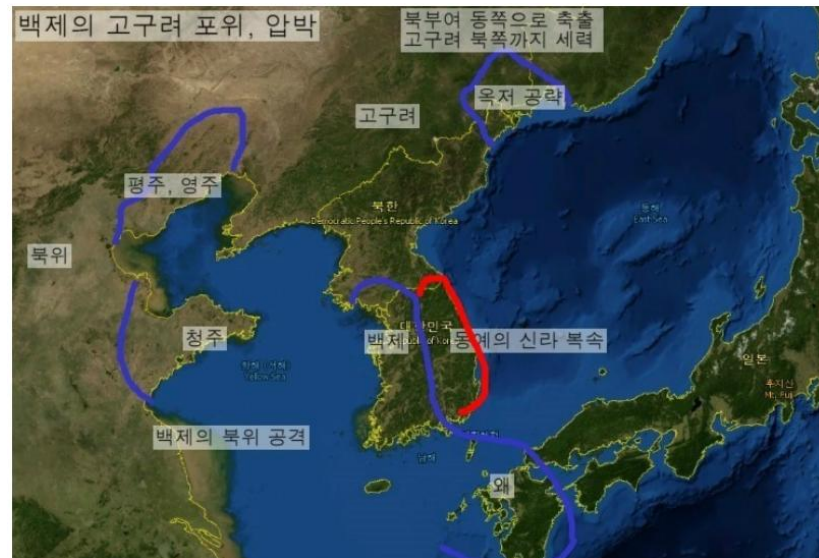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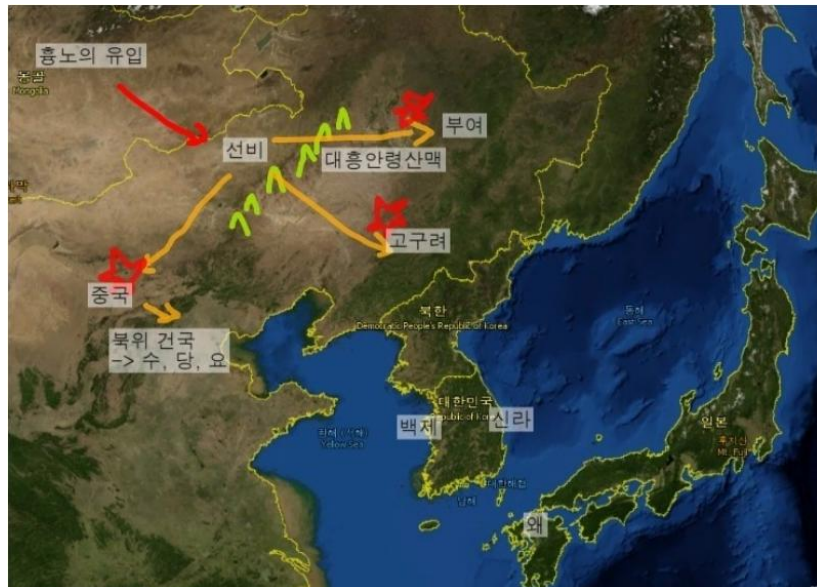


그림 출처 :
<https://m.blog.naver.com/aaaa123krkr/220174812133>



III.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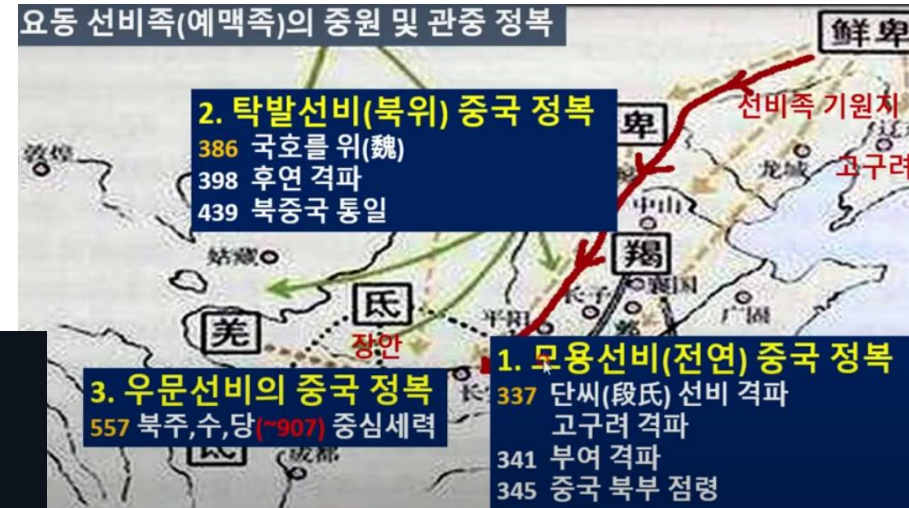


그림 출처 :
<https://m.blog.naver.com/aaaa123krkr/220174812133>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濊(예)의 음은 예, 외, 웨로,
倭(왜)와 같은 음(jwar)

濊(예)를 倭(왜)로 바꾸어 적은데
지나지 않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故 유창균 박사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가 인정한
'한자 음운학 세계 최고 학자'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역주삼국사기1 교감원문 편

삼국사기-신라본기 제4권 법흥왕, 역주 신라

法興王立, 諱原宗 『冊府元龜, 姓募名泰, 泰, 遺事王曆作秦』, 智證王元子, 母延帝夫人, 妃朴氏 保刀夫人)

책부원구란 옛 책에는 성은募(모), 이름은泰(태)라 했는데, 태는 삼국유사 王曆(왕력)에는 秦(진)이라 돼 있다』

지증왕의 원자로서 어머니는 연제부인이요, 왕비는 박씨, 보도부인이다

《남사(南史)》. 《통지(通志)》. 《태평어람(太平御覽)》 등에서는 모두 성이 '모(慕)'요 이름은 '진(秦)'이라 썼고, 《통고(通考)》에서는 《양사(梁史)》를 인용하였기 때문에 역시 똑 같다.

<https://www.stb.co.kr/?m=bbs&bid=stbfree&p=79&uid=1417>

근초고왕이 전연을 멸망시켰다 / 백제의 영토

<https://blog.daum.net/ds3goj/15847660>

역사에 누락된 정복군주 근초고왕의 실상(2)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한평양성 전투의 내막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97867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uts005&logNo=221222553951>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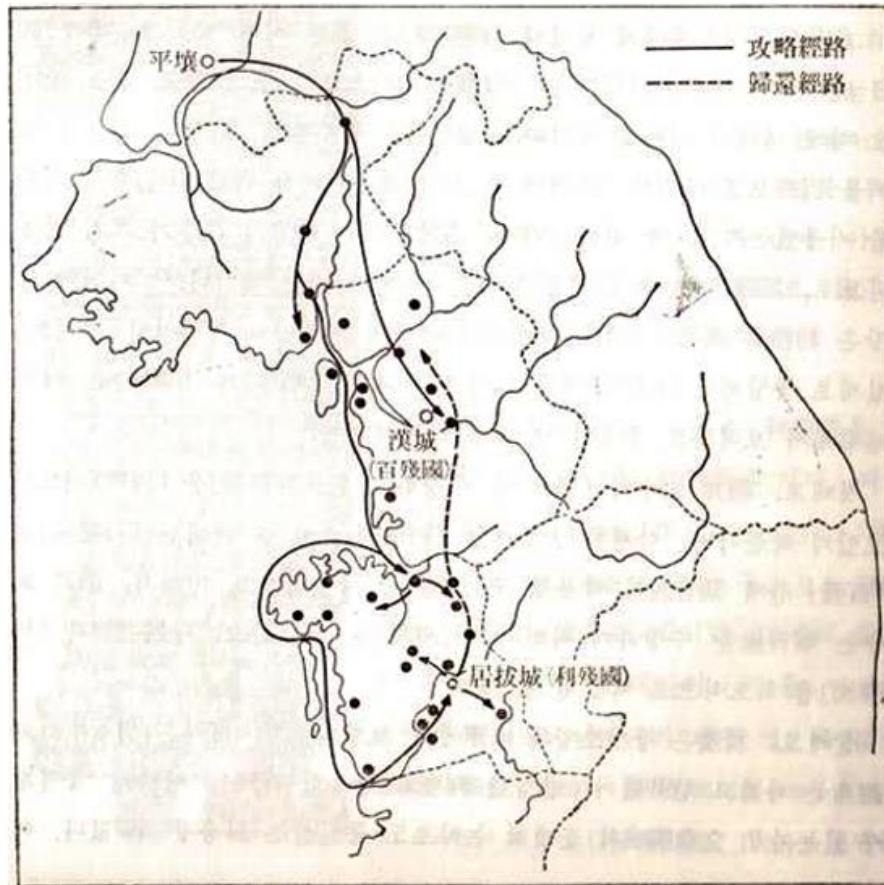
“요동의 장통(위나라시기 관리)은 낙랑, 대방 두 군을 다스렸는데, 고구려왕 을불리(미천왕)와 서로 해마다 다투었다. 낙랑의 왕준은 그 백성 1,000여 가를 이끌고 모용씨에 투항하여 낙랑군을 (요서에) 세운다. 이로써 태수가 되어 군사에 참여한다.” 《자치통감》

이 낙랑을 흡수한 요서의 선비족 모용씨는 이후 전연(337~370)을 세워 중원을 정복하고, 5세기 중엽(453)부터는 한반도에서 신라, 백제, 왜를 장악하는 역사의 중심 세력으로 떠오른다.(이전 강의 ‘황룡국이 된 신라’ 참조)

이에 비해 백제와 고구려는 시종 자신들이 ‘부여’의 후예임을 강조하여 선비계 사람들과 구분하고 있다. 백제는 비록 5세기 말 선비계 모씨 왕들에 의해 왕권을 빼앗겼지만, 6세기 초 무령왕(여유)은 모씨 성을 쓰지 않고 부여씨 또는 줄여서 여씨를 성을 썼으며,

신라는 부여계 국가인 고구려를 치기 위해 중국을 통일한 선비계 나라인 수나라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걸 사표를 짓게 되는데(608년), 수나라의 양제는 그것을 받아들여(611년) 결국 고구려를 공격한다(612년~614년).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 김성호 박사의 책에 그려진 리잔국(비류백제)의 도읍 거발성(웅진) [이미지=필자제공]

그림 출처: 김성호 :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

스카이데일리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spot.html?ID=40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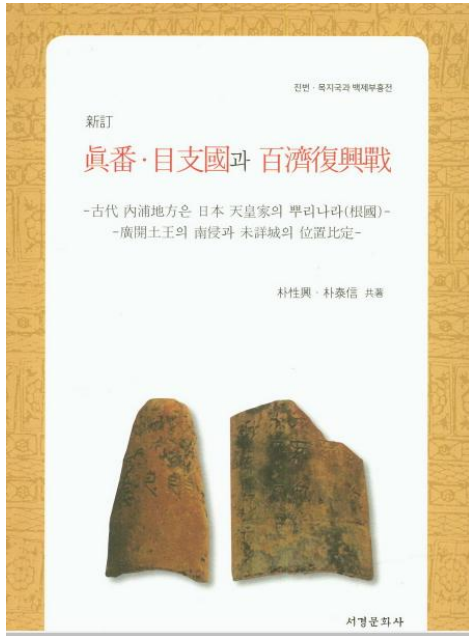
■ 당진은 당나라와 가는 길일 뿐 아니라 일본과도 가는 삼거리였다

■ 임존성과 비류백제 거발성은 같은 곳이었다

■ 비류백제설 비판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
ttpsRedirect=true&blogId=man1120&logNo=2
20147987321](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man1120&logNo=220147987321)

III.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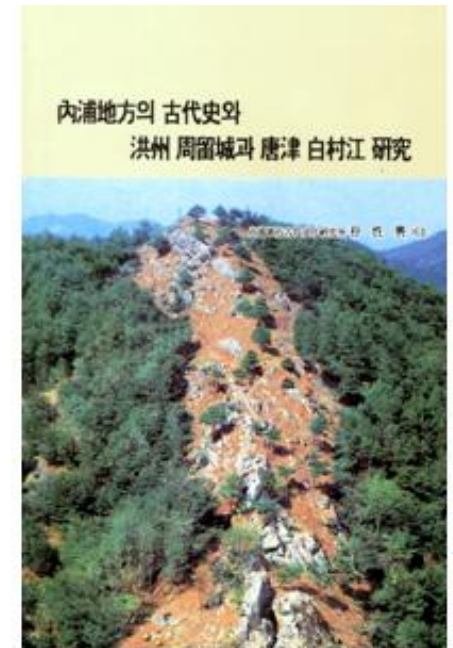
■ 2천 년 전 진번국의 도읍지에
지금의 충남도청이 들어섰다
<https://hongjuin.news/304>

임둔 · 진번군의 치폐와 위치에
관한 재논의
삼교천의 어원과 진번군 삼현의
치소 134



■ 2019년 10월
사)내포지방고대문화연구원, 장곡산성 주류성 정설로 확정
목표

출처 : 내포뉴스(<http://www.naeponews.co.kr>)
<https://hongjuin.news/3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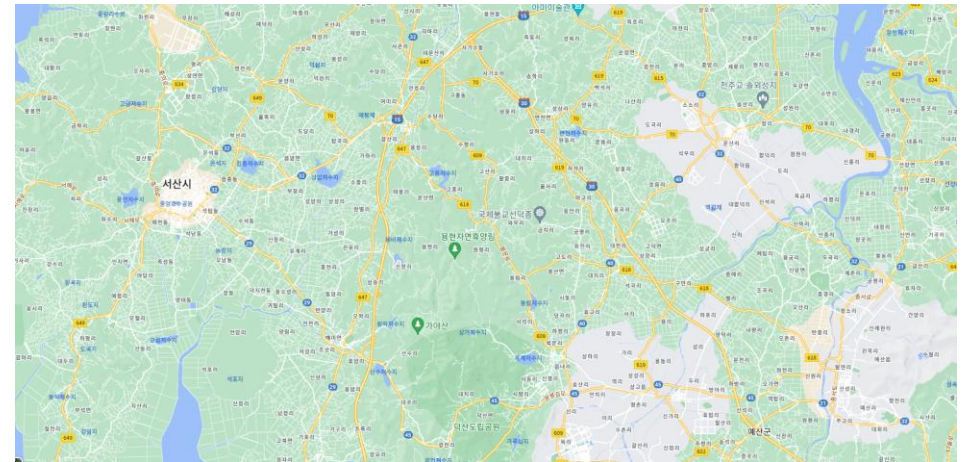
■ 2004년
박성홍 옹 '홍주주류성'설
집대성
충남시사신문

당진은 진번국, 목지국이자
임나가야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1

당진 가야산



가야봉 정상에서 바라본 석문봉(왼쪽)과 옥양봉(오른쪽).

<https://news.v.daum.net/v/20191127165448380>

가야산- 불교 본산지인가 가야-코끼리 : 하나라때 홍산문화때
코끼리 한국에도 있었다

Ⅲ . 백촌강 전투 이전의 기억과 당진

통사에서 진번군의 문제가 공백이어서 공백으로 놓아둘 수 없어 이병도 박사의 학설을 택한다는 이현종 박사의 주장에 의해 내포지방의 고대사에서 내포지방이 진번과 목지국의 고토일 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며 ‘내포지방의 고대사’와 ‘홍주주류성’ 학설을 설파하고 있다.

주류성에 대해서는 90년 전 일본 와세다 대학 쓰다 교수가 한산설을 주장

10년이 지난 80년 전엔 조선총독부 역사편수관이던 일본학자가 부안설을 주장했다. 그후

다시 10년이 지나 경성제국대학 일본 교수는 부안설을,

우리나라 역사학자 이병도 씨는 한산설을 지지한 바 있다.

15년 전 쯤 연기군 향토사학자 김재봉씨가 신채호의 연기설을 주장하고

박성흥 씨가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홍주에 주류성이 있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홍성군 일대를 5차례 답사한 끝에 장곡면 산성리 일대 산성(학성, 석성산성)을 주류성이라고 주장하며 홍주설(장곡설)이 제기됐다.

<http://www.chungnamsisa.com/detail.php?number=9177&thread=18>

서영교 대청일통지에 보이는 백강 주류성의 위치 : 웅진강 ?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1

변광현

변광현-한종섭 이론 : 또 하나의 백제 연구가- 한종섭 책들 : 위례성 백제

과거불-선돌-미륵

왜 솔위에 미륵을 세웠는가 부분 : 김필재 동영상 : 고인돌 : 외국학자
가야산- 불교 본산지인가 가야-코끼리 : 하나라때 홍산문화때 코끼리 한국에도 있었다

2

한종섭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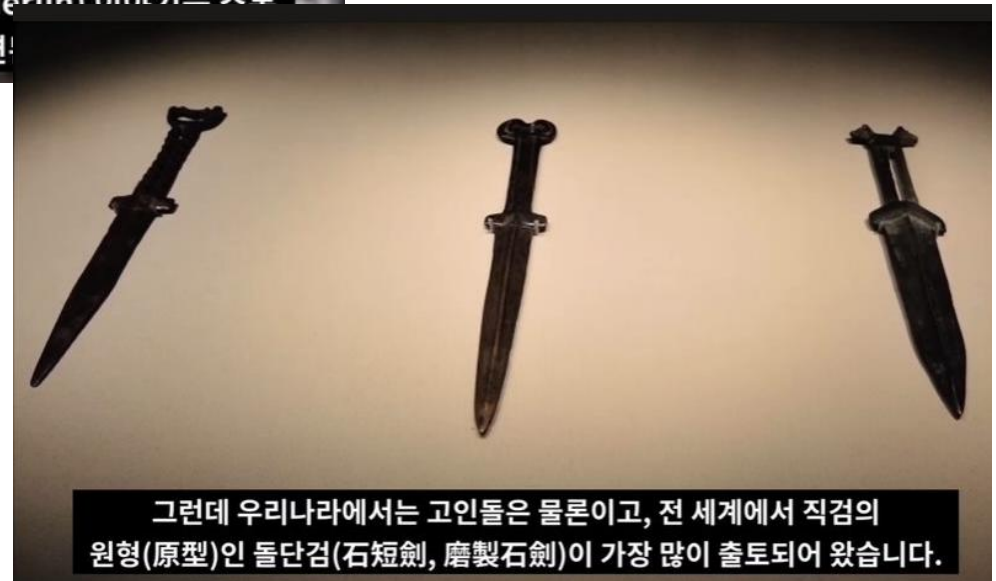


불멸의 안식처 강화 고인돌과
쌍둥이처럼 닮은 아일랜드 고인돌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영국 최고의 전설인 아서(Arthur) 왕과 마법사 멀린(Merlin) 이야기는 스톤헨지(Stonehenge)와 고인돌(Dolmen)과 관련!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고인돌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직검의 원형(原型)인 돌단검(石短劍, 磨製石劍)이 가장 많이 출토되어 왔습니다.

Ⅲ.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법화경과 신약성서
해당 페이지

보살의 기원은 한국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https://m.cafe.daum.net/santam/IZ0A/421?listURI=%2Fsantam%2FIZ0A>

이미우이(黃慧音)의 관세음보살탄생이야기

<https://blog.daum.net/bolee591/16157017>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연구의 필요성

III.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V. 나가는말

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1

금산사



금산사 미륵전 미륵장륙상



금산사 미륵장륙상 아래의 술

I.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2

은진미륵



I.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3

산동- 관음 - 당진



당진 안국사 석조여래



부안 위도 원당제 부안 위도 대리마을은 매년 정월 초사흘날 해상안전을 기원하는 원당제와 품어들 기원하는 용왕굿을 거행한다. 이는 불교의 관음신앙이 민간 신앙화되면서 무속신앙과 결합된 불교의례이다. 오른쪽 사진은 보타락산의 남해관음대불.



I.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4

은산별신굿



I.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5

개태사-왕건



I.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6

간월암-무학



I.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7

김대건-동학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솔미성지 방문 김대건 신부 초상화에 고개숙여 | 아주경제

I.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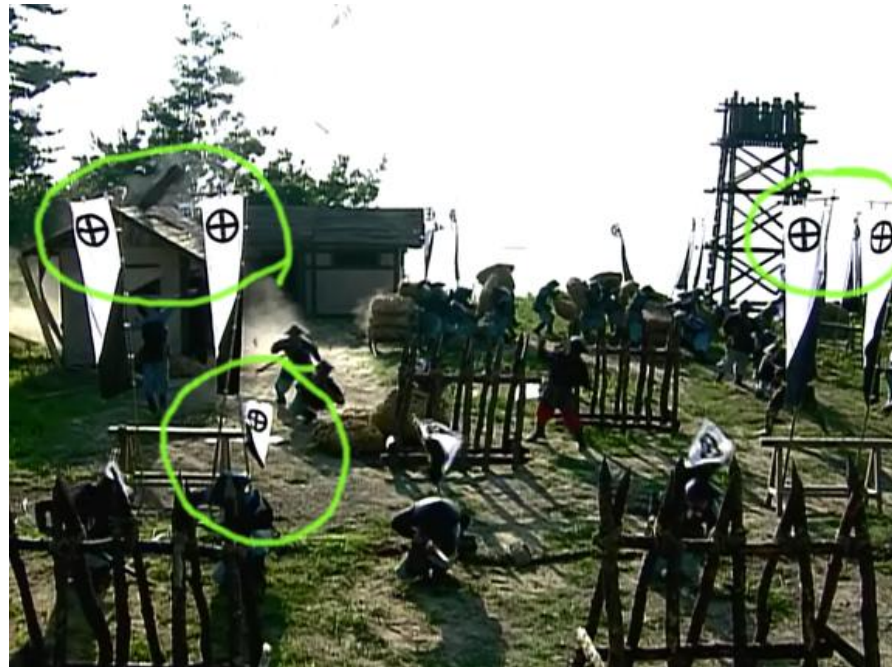
8

온주상인-오사까상인



온주의 다페이 성당의 십자가

중국의 유태인이 사는 곳 원저우(温州:온주):



불멸의 이순신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는 말

II. 동아시아 이해를 위한 당진 문화배경
연구의 필요성

III. 백촌강 전투 배경으로서의 예맥족
디아스포라

IV. 백촌강 전투 이후의 미륵 불교 해양
이용후생

V. 나가는말

V. 나가는말



물병을 든 아나히타



감사합니다